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의 『薪湖隨筆(薪湖隨筆)』 경사류(經史類) 해석의 『역(易)』 활용양상과 그 의미*

남윤덕**

1. 머리말
2. 윤행임 易學의 형성배경 및 특징
 - 1) 윤행임 易學의 형성배경
 - 2) 윤행임 易學의 특징
3. 經史類 해석의 『易』 활용양상
 - 1) 『역』을 활용한 『尙書』해석
 - 2) 『역』을 활용한 『毛詩(詩經)』해석
 - 3) 『역』을 활용한 『十九史略』해석
4.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正祖 時代를 중심으로 활동한 碩齋¹⁾ 尹行恁(1762-1801)의 경학 저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2972).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E-mail : skadbsejr95@hanmail.net).

1) '碩齋'라는 號는 經史講義에서 『易』을 처음 시작한 1783년(癸卯, 정조 7) 당시 정조가 직접 下賜해준 것이다. 그 유래는 「(山地)剝」卦의 “碩果不食, 君子, 得輿, 小人, 剝廬.”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큰 과일은 먹힘을 당하지 않아 나중에 다시 생겨날 이치를 보는 것처럼 훗날 윤행임을 重用하기 위한 정조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정조의 이 같은 관심과 사랑은 훗날 윤행임이 易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학문에 직접 접목시킨 하

에 대한 이해로 經史類 解釋의 『易』 활용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세기 후반 당시 조선의 경학은 정조를 중심으로 주자학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려했던 시기였다. 윤행임은 湖論을 대표하는 南塘 韓元震(1682-1751)의 주자학풍을 계승하였다. 그는 정조의 親衛官僚로서 君師였던 정조와 함께 여러 학설들로부터 주자학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보완·발전시키는 편에 서며, 자신의 학문체계를 一貫한 보수성 짙은 인물이다. 윤행임은 1783년 抄啓文臣으로 선발되어 정조와 함께 처음으로 『經史講義』 『易』을 공부하였다. 이는 훗날 『薪湖隨筆』 경전해석방식의 한 특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²⁾ 현재 윤행임의 『역』을 활용한 經史類 해석방식에 대한 연구는 남윤덕의 논문을 제외하곤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³⁾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經史類 해석의 『역』 활용 사례를 밝혀 18세기 후반 중앙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윤행임의 경전해석에 대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윤행임의 역학논리를 파악함에 있어 正祖朝 易學의 성립 배경과 윤행임 역학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경사류 해석 가운데 『尙書』·『毛詩[詩經]』·『十九史略』의 『역』 활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나의 계기가 되었다[尹行恁, 『碩齋稿』 附錄, 『行狀[尹定鉉]』(『叢刊』 287, 375면. 『韓國文集叢刊』은 『叢刊』으로 약칭한다); 尹行恁, 『碩齋稿』 附錄, 尹定鉉, 『墓表』(『叢刊』 287, 403면); 尹行恁, 『碩齋稿』 附錄, 朴珪壽, 『墓誌銘』(『叢刊』 287, 394면)].

2) 1801년에 저술한 『신호수필』은 윤행임이 經傳과 史書등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기록한 경학저서이다. 『신호수필』은 윤행임 경학의 결정체로 정조 승하 후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流配에서부터 賜死되기 전까지 4-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지어진 것이지만, 윤행임의 경학적 깊이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李圭景은 자신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한원진, 박제가 등 조선시대 유명 문인들의 경학 관련 저서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신호수필』도 함께 언급하여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는 경학저서로 기록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남윤덕, 2018 『碩齋 尹行恁의 四書學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남윤덕, 2016 『碩齋 尹行恁의 義理』 중심 易學觀과 ‘四書’ 활용 양상: 『經史講義』 『易』 [癸卯(1783)]·『薪湖隨筆』 『易』·『繫辭傳』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61: 2018 앞의 논문.

2. 윤행임 易學의 형성배경 및 특징

1) 윤행임 易學의 형성배경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易學은 정자와 주자의 『易』 해석방식을 선별적으로 참고하여 활용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자의 『周易本義』와 『易學啓蒙』은 ‘象數’를 기반으로 『역』을 『易經』과 『易傳』으로 나뉘 『역』을占치는 책으로 인식했으며,⁵⁾ 정자의 『易傳[程傳]』은 ‘義理’ 발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주자의 『역』 해석방식과는 일정부분 차이를 보였다.⁶⁾ 이 같은 현상은 정조를 중심으로 한 ‘경사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정조의 「경사강의_『역』」은 『周易傳義大全』을 중심으로 의리학을 강조하였다. 정조는 1783년 32세의 나이로 ‘經史講義_『역』’을 처음 강의하였는데, 모두 4번에 걸친 경사강의에서 『역』을 강의하였다. 윤행임이 직접 참여했던 계묘년(1783) ‘경사강의_『역』’은 易學講義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역』 전체를 강의하였다. 이것은 바로 정조의 『역』 중심 경학관을 통해 윤행임이 『역』에 남다른 애착을 보인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⁷⁾ 한편, 윤행임과 동갑내기인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茶山 丁若鏞(1762-1836)의 경우, 자신의 『周易四箋』에서 宋代 ‘義理易學’을 거부하고 漢代 ‘象數易學’의 측면에 힘을 실으며, 정조의 「경사강의_『역』」과는 대조를 이뤘다.⁸⁾ 정약용은 주자가 『역학계몽』에서 제시한 ‘상수역학’에 대해 비판하고 「繫辭傳」의 개념들을 순수하게 易理로서 해석하고 『주역』의 演易이 周代에 와서 移易 또는 推移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⁹⁾

이와는 달리 윤행임은 송대 ‘의리학’에 비중을 두면서 ‘상수역학’을 이해하려는 ‘兼治象義’ 역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의리학’은 『역』을 修身書 혹은

4) 송호빈, 2007 「正祖의 易學觀과 『周易』해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면 참고.

5) 서근식, 2013 「正祖의 易學思想 研究: 『經史講義』 『易經』의 問答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33, 195면.

6) 송호빈, 2007 앞의 논문, 1면 참고.

7) 남윤덕, 2016 앞의 논문, 161-162면 참고.

8) 서근식, 2013 앞의 논문, 196면 참고.

9) 김영우, 2004 「정약용과 모기령의 역학 사상 비교 연구」, 『東方學志』 127, 311면.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책으로 인식하여, 궤의 기호학적 해석보다는 주로 卦辭에 담긴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¹⁰⁾ 반면 '상수역학'은 『역』의 卦爻象이 우주 전체의 원리를 포괄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역』의 '象'과 '數'를 가지고 우주자연의 원리를 규명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卦象과 爻象의 기호학적 해석에 중점을 둔다.¹¹⁾

① 『中庸』은 『易』의 印本이고 太極圖說은 『중용』의 인본이니, 『중용』을 읽을 때 태극도설로부터 시작하고 『역』을 읽을 때 『중용』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거의 그 門戶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¹²⁾

② 『孟子』를 말미암으면 『역』을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논어』를 읽으면 유독 『역』을 볼 수 없는가? 공자가 性과 命에 대해서 드물게 말씀하시는 하였지만, 『논어』를 잘 읽으면 어찌 『맹자』를 말미암아 『역』을 구하는 것만 못하겠는가? 공자의 『논어』에는 『역』에 대해서 논한 조항이 두 章밖에 실려 있지 않으니, '점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과 '『역』을 공부하게 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는 것인데, 읽는 자가 이 가르침을 깊이 음미한다면 이 한 구절만으로도 『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평소 하신 말씀이 『詩經』·『書經』과 禮를 행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門人들이 감히 文字로 형용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논어』를 통해서 『역』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겠는가? …… 원임 직각 신 尹行愆이 정사년(1797)에 기록한 것이다.¹³⁾

①에서 정조는 『역』과 『중용』의 관계에 대해, “『중용』이 『역』의 印本”이라고 하여 『역』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풀이해 놓은 것이 『중용』임을 주장하였다. 정

10) 정병석·김영남, 2014 『象數에 대한 朱子와 李退溪의 觀點』 『民族文化論叢』 56, 360면 참고.

11) 위의 논문, 360면 참고.

12) 正祖,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4, 『文學 4』(『叢刊』 267, 206면) “中庸是易之印本, 太極圖說是庸之印本, 讀中庸, 自太極圖說始, 讀易, 自中庸始, 則庶可以得其門戶矣.”; 남운덕, 2018 앞의 논문, 176면 각주 834 재인용.

13) 正祖,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4, 『文學 4』(『叢刊』 267, 218-227면) “由孟子, 可以觀易云, 而讀論語, 獨不可觀易乎? 夫子罕言性與命, 而善讀論語, 則亦豈下於由孟求易? 夫子於論語, 有論易者只二章, 曰: “不占云云矣.” 曰: “學易可以無大過.” 讀者玩味於斯訓, 則此一句, 亦可以觀易也. 夫子之雅言, 特詩書執禮, 故門人不敢形容於文字間, 亦豈可以此謂論語之不可觀易乎? …… 原任直閣臣尹行愆丁巳錄.”; 남운덕, 2018 앞의 논문, 176면 각주 835 수정 후 재인용.

조는 『역』을 四書三經 가운데 第一로 생각하였다. 정조는 거의 모든 經傳의 가르침이 『역』으로 歸結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⁴⁾ ②에서는 윤행임이 36살 때 정조의 말을 직접 기록한 것인데, 『논어』와 『맹자』에서 『역』을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정조의 이와 같은 논리는 윤행임이 경전해석의 ‘『역』근원설’을 표방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고, 나아가 윤행임의 역학관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 윤행임 易學의 특징

(1) 庸學의 ‘『易』 根源說’

윤행임의 『역』을 활용한 經史類 해석 방식은 『薪湖隨筆』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윤행임은 四書三經뿐만이 아니라, 『소학』·『예기』·『좌전』을 비롯하여 『십구사략』·『통감절요』·『四勿要義』·『經傳同異』 등의 풀이에도 『역』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대학』과 『중용』을 풀이하면서 그 근원이 『역』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렇듯 『역』에서 비롯된 경사류 해석 방식은 윤행임 역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겠다.

① 『大學』은 『易』에서 시작한다. 『大學』의 宗旨은 곧 ‘明德’이다. 『易』의 九卦는 ‘德’을 기반[基]으로 삼고, ‘德’을 자루[柄]로 삼으며, ‘德’을 뿌리[本]로 삼고, ‘德’을 확고함[固]으로 삼았으며, ‘德’의 닦음[修], ‘德’의 넉넉함[裕], ‘德’의 분별함[辨], ‘德’의 자리[地], ‘德’의 裁制[制]에 이르기까지 ‘德’을 주로 삼지 않은 것이 없고, 日新을 盛德이라 하고 그것으로써 神明의 ‘德’을 통하는 데 이를 수 있으니, 『大學』의 근본이 『易』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南塘 韓先生이 “『易』의 『(火地) 晉(35)』卦를 두고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힌다.[自昭明德]’”고 한 것은 『대학』보다 앞서는 것이다.¹⁵⁾

14) 신원봉, 2009 『正祖의 주역관』 『동양문화연구』 3, 103면.

15) 尹行愆, 『碩齋別稿』 卷5, 『薪湖隨筆』 『大學』, 『叢刊』 287, 473면) “大學始於易. 大學宗旨即明德. 而易之九卦, 德以爲基, 德以爲柄, 德以爲本, 德以爲固, 以至德之修也, 德之裕也, 德之辨也, 德之地也, 德之制也, 莫非以德爲主, 而能底於日新之謂盛德, 以通神明之德, 則大學之本, 顧不在於易耶? 南塘韓先生曰: ‘晉之『自昭明德』, 先於大學.’”; 남윤덕, 2018 앞의 논문, 176-177면 각주 837 수정 후 재인용.

② 『中庸』과 『大學』은 하나이다. 그 지극한 功은 모두 천하를 태평 하게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中庸』의 ‘性’·‘道’·‘教’와 『대학』의 ‘明’·‘新’·‘善’은 서로 짝이 되는 文字이며, 그 근본은 모두 『易』에서 나왔다. 『易』 『繫辭傳』에 “乾은 큰 시작을 주관하고,坤은 물건을 만들어 완성한다.”라고 하니, 『中庸』과 『大學』에 이른바 “도를 닦고[修道], 선을 밝히는 것[明善]”이 대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易』 『繫辭傳』에 “하늘과 땅의 조화를 본받고 한계 지워 지나치지 않고, 萬物을 곡진히 이루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니, 『中庸』과 『大學』에 이른바 “물건을 이루고[成物],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新民]”이 대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총괄하자면 “이루어진 性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道義의 門이다.”라는 것이다.¹⁶⁾

①에서 윤행임은 “『大學』은 『易』에서 시작한다.”와 “『大學』의 근본이 『易』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大學』의 시발점을 『易』에서 찾았다. 위 글은 윤행임이 『易』의 『繫辭下傳』 第7章과 『繫辭上傳』 第5章 그리고 『繫辭下傳』 第2章을 근거로 하여 『大學』의 ‘明德’을 풀이한 것이다. 윤행임은 『大學』이 『易』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한원진의 “뽕卦에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힌다.[自昭明德]’¹⁷⁾”¹⁸⁾는 근거를 덧붙여 『易』이 『大學』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하며, 『大學』의 ‘『易』근원설’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②에서는 『中庸』에 대한 ‘『易』근원설’을 밝히고 있다. 윤행임은 “『中庸』과 『大學』은 하나이다. 그 근본은 모두 『易』에서 나왔다.”라고 하여 『中庸』의 연원을 『易』에서 찾았으며, 『中庸』이 『易』에 근원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행임은 『易』의 『繫辭上傳』 第1章과 『繫辭上傳』 第4章 그리고 『繫辭上傳』 第7章을 근거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였다.¹⁹⁾

16) 尹行恁, 『碩齋別稿』 卷6, 『薪湖隨筆_中庸』(叢刊 287, 488면) “庸·學一也. 其極功皆以天下平爲準. 中庸之‘性’·‘道’·‘教’, 大學之‘明’·‘新’·‘善’, 卽互對文字, 而其本都出於易. 易之繫曰: ‘乾知大始, 坤作成物.’ 庸·學所謂‘修道’·‘明善.’ 蓋始於此矣. 易之繫曰: ‘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庸·學所謂‘成物’·‘新民.’ 蓋始於此矣. 蔽一言曰: ‘成性存存, 道義之門.’”; 남윤덕, 2018 앞의 논문, 178면 각주 843 수정 후 재인용.

17)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13, 『晉_象傳』(『四庫』 28. 『四庫全書』는 『四庫』로 약칭한다) “象曰: ‘明出地上, 晉, 君子以, 自昭明德.’”

18) 韓元震, 『南塘集』 卷26, 『居觀錄 并序』, 雜著(『叢刊』 202, 49면) “明夷, 大象莅衆用晦而明, 莅衆, 內離明而外坤衆也. 用晦而明, 上坤地而下離日也. …… 大象晉之自昭明德, 用明於己也. 明夷之用晦而明, 用明於人也. 治己則不厭其明, 而莅衆則有時而當晦, 用晦所以爲明也.”

19) 庸學의 ‘『易』 根源說’은 남윤덕, 2016 앞의 논문, 181-185면을 참고하여 기술함.

(2) 人物性異論의 ‘『乾』卦 根源說’

18세기 전반 韓元震과 李柬은 『중용장구』 首章의 ‘天命之謂性’과 『맹자』 『告子上』 제3장의 ‘生之謂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각각 서로의 관점에서 이론적 근거로 삼으며 人物性同異에 대한 湖洛論爭을 전개하였다.²⁰⁾ 윤행임은 가학을 통해 한원진의 호론계 학풍을 계승하여 ‘인물성이론’을 수용하였다.²¹⁾ ‘人物性異論’을 표방했던 윤행임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만의 근거를 『易』의 ‘乾』卦에서 찾았다. 윤행임은 『易』의 이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인물성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64卦를 통틀어 논하자면 ‘性命’의 근원에서 발생하여 사람과 동물의 ‘性’을 나는 것은 곧 乾道가 變化하여 각각 ‘性命’을 다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무엇 때문에 각각 다르게 한다고 하는가? 사람과 동물의 ‘性’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각각 다르게 한다”라고 한다. ‘각각 다르게 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한다는 것이다.²²⁾

윤행임은 ‘인물성이론’의 원리가 『易』의 ‘乾』卦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행임은 『易』의 논리를 활용하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人物’의 ‘性’이 각각 다르다는 ‘인물성이론’의 해석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64卦를 총론하면서 윤행임은 乾道의 변화에 의해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서로 같지 않다는 ‘인물성이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易』을 활용한 ‘인물성이론’의 표방이라는 윤행임 ‘易學’의 특징적인 단면을 제시해 준다.

古人은 人物의 ‘性’에 대하여 『역』의 ‘(重天) 乾(1)』卦로부터 구분하여 人物의 성을 다르게 하였는데, 오히려 後人이 서로 혼동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삼감이 이와 같았다.[三年間]²³⁾

20) 조장연, 2005 「남당 한원진의 인물성론과 그 정치적 성격」 『한국철학논집』 17, 322면 참고.

21) 유봉학, 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17면 도표 참고.

22) 尹行恁, 『碩齋別稿』 卷7, 『薪湖隨筆_易』(『叢刊』 287, 504면) “統六十四卦而論之, 其所以發性命之原, 分人物之性者, 卽乾道變化, 各正性命是已. 何以謂各正也? 人物之性不同也, 故特曰: ‘各之’. 各之者異之也. 異之者分人物也.”; 남윤덕, 2018 앞의 논문, 75면 각주 348 수정 후 재인용.

위의 글에서도 윤행임은 ‘인물성이론’의 원리가 『易』의 『乾』卦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행임은 ‘인물성이론’의 근원처를 『易』의 첫 번째卦인 『(重天) 乾(1)』卦에서 발견한다. 윤행임은 “古人은 ‘人物’의 ‘性’에 대하여 『易』의 『(重天) 乾(1)』卦로부터 구분하여 ‘인물’의 ‘성’을 다르게 하였는데, 오히려 後人이 서로 혼동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삼감이 이와 같았다”라는 언급을 통해 ‘인물성이론’의 根源處를 찾고, 후세인들이 혼란을 겪어 빚어진 ‘人物性同論’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표방하였다.²⁴⁾ 이렇듯 윤행임의 『易』根源說은 정조와 함께한 경사강의 『역』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으며, 윤행임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역』을 활용한 經史類 해석의 보다 진일보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것이다.

3. 經史類 해석의 『易』 활용양상

1) 『역』을 활용한 『尙書』해석

윤행임은 『尙書』의 여러 구절들을 풀이하고 해석함에 있어 『역』을 활용하여 그 이치를 이해하였다. 『尙書』는 『書經』의 異稱인데, 虞·夏·殷[商]·周의 네 王朝에 걸쳐 典·謨·訓·誥·誓·命의 여섯 가지 文體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四書·六體라 하며, 여기에 征·貢·歌·範을 더하여 十例라하기도 한다.²⁵⁾ 『尙書』는 중국 고대의 堯·舜 시대로부터 春秋時代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정치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다.²⁶⁾ 특히, 聖君이라 칭송받는 夏·殷[商]·周 역대 제왕들의 政治行歷를 아우르고 있어 윤행임이 爲政者로서 經世濟民의 방법을 찾

23) 尹行恁, 『碩齋別稿』 卷16, 『薪湖隨筆_『禮記』下』(『叢刊』 288, 129면) “古人於人物之性, 自易之乾卦, 靡不分而異之, 猶恐後人之相混也如此其勤矣. 三年間”: 남윤덕, 2018 앞의 논문, 73면 각주 332 재인용.

24) 人物性異論의 ‘乾』卦 根源說은 남윤덕, 2018 앞의 논문, 72-76면을 참고하여 기술함.

25) 成百曉, 2006 『書經集傳』, 傳統文化硏究會, 5면.

26) 申性秀, 2011 『卜·筮와 『易』의 關係에 관한 研究: 『周禮』·『書經』·『周易』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1), 396면.

고, 君師였던 정조를 보필하기 위해서 『대학』·『중용』과 함께 주의 깊게 탐독했던 경전이었다.

(『尙書』 『虞書_舜典』에) ‘舜임금으로 요임금을 계승한 것[以舜承堯]’²⁷⁾은 『역』의 「(火天)大有(14)」괘이며, 『대학』(經1章)의 지극한 선에 그친다[止於至善]²⁸⁾는 것이고, 『중용』(第1章)의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된다[天地位 萬物育]²⁹⁾는 것이다. (『虞書__舜典』, 第19章에) ‘五品이 순하지 않다[五品不遜]’³⁰⁾와 (『虞書__舜典』, 第20章에) ‘악탈하고 죽이며 밖을 어지럽히고 안을 어지럽히다[寇賊姦宄]’³¹⁾는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으리오? 성인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근심하고, 편안하게 다스려졌다고 하여 조금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契와 皐陶에게 명한 것이니, 그 말이 이와 같았다. 楊子雲은 “六經에서 다스림은 혼란하기 전을 소중히 여긴다[六經之治, 貴於未亂].³²⁾”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름이다.³³⁾

윤행임은 『尙書』 『虞書_舜典』의 특정 구절들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역』의 상응관계를 적극 활용하였다. 윤행임은 구체적으로 『역』의 14번째 괘인 「(火天)大有」卦를 이용하여 「우서_순전」에 나오는 ‘以舜承堯’·‘五品不遜’·‘寇賊姦宄’의 이치를 이해하려 하였다. 「대유」괘는 「序卦傳」에서 “남과 함께 하는 자는 물건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여 괘의 형태상 불이 하늘 위에 있어 밝음이 먼 곳까지

27) 蔡沈, 『書經集傳』 卷1, 「虞書__舜典」, 第1章(『四庫』 58) “曰: ‘若稽古帝舜.’ 曰: ‘重華協于帝, 濬哲文明, 溫恭允塞, 玄德, 升聞, 乃命以位.’”; 蔡沈, 『書經集傳』 卷1, 「虞書__舜典」, 第3章(『四庫』 58) “帝曰: ‘格! 汝舜! 詢事考言, 乃言, 底可績, 三載, 汝陟帝位, 舜, 讓于德, 弗嗣.’”; 蔡沈, 『書經集傳』 卷1, 「虞書__舜典」, 第4章(『四庫』 58) “正月上日, 受終于文祖.”

28) 朱熹, 『大學章句』 經1章(『四庫』 197)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新)民, 在止於至善.”

29) 朱熹, 『中庸章句』 第1章(『四庫』 197)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30) 蔡沈, 『書經集傳』 卷1, 「虞書__舜典」, 第19章(『四庫』 58) “帝曰: ‘契, 百姓, 不親, 五品, 不遜, 汝作司徒, 敬敷五教, 在寬.’”

31) 蔡沈, 『書經集傳』 卷1, 「虞書__舜典」, 第20章(『四庫』 58) “帝曰: ‘皐陶, 蠻夷猾夏, 寇賊姦宄, 汝作士, 五刑, 有服, 五服, 三就, 五流, 有宅, 五宅, 三居, 惟命, 克允.’”

32) 揚雄, 『揚子雲集』 卷4, 「上書__諫不受單于朝書」(『四庫』 1063) “臣聞, 六經之治, 貴於未亂, 兵家之勝, 貴於未戰.”

33) 尹行愆, 『碩齋別稿』 卷9, 「薪湖隨筆__尙書」上(『叢刊』 288, 7면) “‘以舜承堯’, 易之大有也, 大學之止至善也, 中庸之天地位而萬物育也, ‘五品不遜’, ‘寇賊姦宄’, 夫豈有是理? 而聖人先事之憂, 不以乂安而少忽, 故命契命皐陶, 其辭如此, 楊子雲所謂 ‘六經之治, 貴於未亂.’ 其斯之謂也.”

이르고, 陰柔가 존위에 거하여 상대하고 풍성하게 소유하며, 上下가 뜻을 함께하여 惡을 막고 善을 드날려 하늘의 아름다운 命을 순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행임은 『우서_순전』에서 ‘순임금이 요임금을 계승[以舜承堯]한 이치가 『대유』괘의 전체적 의미와 맞물려 있다고 보았다. 윤행임은 『우서_순전』 第19章에서 ‘五品不遜’에서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의 관계가 순하지 못한 점과 第20章에서 ‘약탈하고 죽이며 밖을 어지럽히고 안을 어지럽히다[寇賊姦宄]’는 구절을 가져와 성인의 다스림은 이렇듯 순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다스려 天命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유』괘의 卦象이 이와 일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尙書』『虞書_大禹謨』 第6章에) “백성들을 거스르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따르지 마소서.[罔拂百姓, 以從己之欲]³⁴⁾”라는 것은 곧 『大學』 ‘絜矩’³⁵⁾의 근본이며, “게을리 하지 않고 황폐하지 않는다.[無怠無荒]”는 것은 또한 (『論語』『子路』 第1章에) 孔子께서 “술선하며 부지런히 해야 하고,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先之勞之而無倦]”³⁶⁾는 뜻이니, 후대 성인의 말은 옛 성인의 가르침을 祖述하지 않음이 없다. “道를 어기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구하다[違道干譽]”와 같은 것은 『역』(『(地澤)臨』(19)卦 六三爻)의 “기쁨으로 임하다[甘臨]”³⁷⁾가 이것이다.³⁸⁾

윤행임은 『尙書』『虞書_大禹謨』 第6章의 구절 가운데, ‘罔拂百姓’·‘以從己之欲’·‘無怠無荒’·‘違道’·‘干譽’에 대해 『역』의 구절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풀이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道를 어기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구하다[違道干譽]”

34) 蔡沈, 『書經集傳』 卷2, 『虞書_大禹謨』 第6章(『四庫』 58) “益曰：‘吁！戒哉！儆戒無虞，罔失法度，罔遊于逸，罔淫于樂，任賢勿貳，去邪勿疑，疑謀，勿成，百志惟熙，罔違道，以干百姓之譽，罔拂百姓，以從己之欲，無怠無荒，四夷，來王。’”

35) 朱熹, 『大學章句』, 『傳文』 第10章(『四庫』 197)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上老老而民興孝，上長長而民興弟，上恤孤而民不倍，是以，君子有絜矩之道也。”

36) 朱熹, 『論語集註』, 『子路』 第1章(『四庫』 197) “子路問政，子曰：‘先之勞之。’請益，曰：‘無倦。’”

37)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8, 『臨_六三』(『四庫』 28) “六三，甘臨，无攸利，既憂之，无咎，象曰：‘甘臨，位不當也，既憂之，咎不長也。’”

38) 尹行恁, 『碩齋別稿』 卷9, 『薪湖隨筆_尙書_上』(『叢刊』 288, 7면) “‘罔拂百姓，以從己之欲’者，即大學‘絜矩’之本，而‘無怠無荒’，亦孔子‘先之勞之而無倦’之意也，後聖之言，無非祖述於古聖之訓者，若‘違道干譽’，易之‘甘臨’，是也。”

는 구절은 『역』의 19번째 괘인 『(地澤)臨』卦 六三爻에 나오는 “기쁨으로 임하다 [甘臨]”는 구절과 그 의미가 합치된다고 보았다. 즉 이것은 윤행임이 『대우모』에서 “도를 어기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罔違道, 以干百姓之譽]”고 경계한 이유가 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 자체가 逆天의 의미를 지녀 順理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곧 『(지택)임』괘의 六三爻의 위치와 그象에 비유하여 해석한 것이다. 『(지택)임』괘 각각의 爻辭에서 初九와 九二爻는 ‘감동하여 임함[咸臨]’³⁹⁾이고, 六四爻는 ‘臨함이 지극함[至臨]’⁴⁰⁾이며, 六五爻는 ‘지혜로 임함[知臨]’⁴¹⁾ · 마지막 上六爻는 ‘臨함에 돈독함[敦臨]’⁴²⁾으로 모두가吉하여 허물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육삼효는 『본의』⁴³⁾와 『정전』⁴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위치가 陰柔로 자리가 中正하지 못하면서 下卦의 최상위에 거처하여 ‘甘說로 사람들에게 臨[甘臨]’하는 ‘違道干譽’의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여 경계하고, 고치면 허물이 없게 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므로 윤행임의 이러한 해석 논리는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① (『尙書』 『虞書_益稷』 第3章에) “이웃이다[隣哉]”⁴⁵⁾의 ‘이웃[隣]’은 마치 『易』 (『(地天)泰(11)』 六四爻)의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웃과 함께한다.[不富以其隣]”⁴⁶⁾와 『論語』(『里仁』 第25章)의 “덕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必有隣]”⁴⁷⁾의 ‘이웃[隣]’과 같으니, 그 ‘친하게 돕는 것[親比]’으로 말한 것이다.⁴⁸⁾

39)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8, 『臨_初九·九二』(『四庫』 28) “初九, 咸臨, 貞, 吉, …… 九二, 咸臨, 吉, 无不利.”

40)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8, 『臨_六四』(『四庫』 28) “六四, 至臨, 无咎.”

41)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8, 『臨_六五』(『四庫』 28) “六五, 知臨, 大君之宜, 吉.”

42)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8, 『臨_上六』(『四庫』 28) “上六, 敦臨, 吉, 无咎.”

43)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8, 『臨_六三』(『四庫』 28) “(本義) 陰柔不中正而居下之上, 爲以甘說臨人之象, 其占固无所利, 然能憂而改之則无咎也. 勉人遷善, 爲教深矣.”

44)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8, 『臨_六三』(『四庫』 28) “(程傳) 陰柔之人, 處不中正而居下之上, 復乘二陽, 是處不當位也. 既能知懼而憂之, 則必強勉自改, 故其過咎不長也.”

45) 蔡沈, 『書經集傳』 卷2, 『虞書_益稷』 第3章(『四庫』 58) “帝曰: ‘吁! 臣哉隣哉, 隣哉臣哉. 禹曰: ‘兪.’”

46)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5, 『泰_六四』(『四庫』 28) “六四, 翩翩, 不富以其隣, 不戒以孚.”

47) 朱熹, 『論語集註』, 『里仁』 第25章(『四庫』 197) “子曰: ‘德不孤, 必有鄰.’”

48) 尹行恇, 『碩齋別稿』 卷9, 『薪湖隨筆_『尙書』 上』(『叢刊』 288, 10면) “隣哉隣, 如易之不富

② 『易』의 「(澤火)革(49)」卦(象傳에) “曆數를 다스리다.[治曆]⁴⁹⁾”라는 象이 있다. 그러므로 (『尙書』 「商書_咸有一德」 第3章에) “이에 夏나라의 正朔을 바꿨습니다.[爰革夏正]⁵⁰⁾”라고 한 것이니, 대개 「革」卦를 취한 것이다. ‘革’⁵¹⁾이라는 것은 그 ‘바탕[質]’에 기인하여 그 ‘문채[文]’를 改革하는 것을 이른다.⁵²⁾

③ ‘洪水’는 곧 한번 開闢하는 것이어서, 『易』에 있어 「(水雷)屯(3)」卦가 된다. 그러므로 (『尙書』 「夏書_禹貢」 第99章에) “土地와 姓을 내려주었다.[錫土姓]⁵³⁾”라고 한 것이니, 대개 「(屯)」卦의 序文과 初九爻에)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建侯之利(利建侯)]⁵⁴⁾에서 취한 것이다.⁵⁵⁾

①에서 윤행임은 『尙書』 「虞書_益稷」 第3章에 나오는 “이웃이다[隣哉]”에 사

以其隣·論語之‘德不孤必有隣’之隣, 以其親比而言也.”

- 49)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17, 「革_象傳」(『四庫』 28) “象曰: ‘澤中有火革, 君子以, 治歷明時.’ (程傳) 君子觀變革之象, 推日月星辰之遷易, 以治歷數, 明四時之序也.”
- 50) 蔡沈, 『書經集傳』 卷4, 「商書_咸有一德」 第3章(『四庫』 58) “夏王, 弗克庸德, 慢神虐民, 皇天, 弗保, 監于萬方, 啓迪有命, 眷求一德, 俾作神主, 惟尹, 躬暨湯, 咸有一德, 克享天心, 受天明命, 以有九有之師, 爰革夏正.”
- 51)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17, 「革_序文」(『四庫』 28) “革, 已日, 乃孚, 元亨, 利貞, 悔亡. (程傳) 革者, 變其故也, 變其故, 則人未能遽信. 故必已日然後, 人心信從. 元亨利貞悔亡, 弊壞而後革之. 革之, 所以致其通也. 故革之而可以大亨, 革之而利於正道, 則可久而得去故之義, 无變動之悔, 乃悔亡也. …… (本義) 革, 變革也. 兌澤在上, 離火在下, 火然則水乾, 水決則火滅, 中少二女, 合爲一卦而少上中下, 志不相得. 故其卦爲革也.”; 「革_象傳」(『四庫』 28) “象曰: ‘革, 水火相息, 二女同居, 其志不相得, 曰: ‘革.’”
- 52) 尹行恁, 『碩齋別稿』 卷10, 「薪湖隨筆_『尙書』 下」(『叢刊』 288, 23면) “在易澤火革, 有‘治曆’之象. 故‘爰革夏正’, 蓋取諸革. 革者, 因其質而改其文之謂也.”
- 53) 蔡沈, 『書經集傳』 卷3, 「夏書_禹貢」 第99章(『四庫』 58) “錫土姓. (蔡沈註) 錫土姓者, 言錫之土, 以立國. 錫之姓, 以立宗, 左傳所謂天子建德, 因生以賜姓, 胙之土而命之氏者也.”
- 54)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 「屯_序文」(『四庫』 28) “屯, 元亨, 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 (程傳) 屯, 有大亨之道而處之利在貞固, 非貞固, 何以濟屯? 方屯之時, 未可有所往也. 天下之屯, 豈獨力所能濟? 必廣資輔助. 故, 利建侯也.”; 「屯_初九」(『四庫』 28) “初九, 磐桓, 利居貞, 利建侯. (程傳) 初以陽爻在下, 乃剛明之才, 當屯難之世, 居下位者也, 未能便往濟屯, 故, 磐桓也. 方屯之初, 不磐桓而遽進, 則犯難矣. 故, 宜居正而固其志. 凡人, 處屯難, 則鮮能守正, 苟无貞固之守, 則將失義, 安能濟時之屯乎? 居屯之世, 方屯於下, 所宜有助, 乃居屯濟屯之道也. 故, 取建侯之義, 謂求輔助也.”
- 55) 尹行恁, 『碩齋別稿』 卷9, 「薪湖隨筆_『尙書』 上」(『叢刊』 288, 13면) “洪水便一開闢, 在易爲屯. 故‘錫土姓’. 蓋有取於‘建侯之利’也.”

용된 ‘이웃[隣]’이라는 한자어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地天)泰(11)』卦에 나타난 ‘이웃[隣]’이라는 한자어에 집중한다. 특히, 윤행임은 『역』의 11번째卦인 『泰』卦 六四爻의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웃과 함께한다.[不富以其隣]”에 보이는 ‘이웃[隣]’을 우선 언급하며, 그 속에 나타난 ‘이웃[隣]’이라는 한자어가 『상서』 『益稷』에서 쓰인 ‘이웃[隣]’의 한자어와 그 의미가 상통함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웃[隣]’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친하게 돕는 것을 의미하는 ‘親比’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윤행임은 밝히고 있다. ②에서는 『尙書』 『商書』 咸有一德』 第3章에 나오는 “이에 夏나라의 正朔을 바꿨습니다.[爰革夏正]”의 구절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革’의 의미를 강조하며, 『易』의 49번째卦인 『(澤火)革』卦 象傳에 “曆數를 다스리다.[治曆]”의 語句를 덧붙여 卦象이 變革의 象을 관찰하여 해와 달과 星辰을 옮기고 바뀔을 미루어 曆數를 다스려 四時의 차례를 밝히듯 夏나라의 正朔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變革’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革’이라는 의미는 『程傳』이나 『本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變革[改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윤행임은 이와 같이 『尙書』에 나타난 ‘革’의 이치를 『역』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③에서는 『尙書』 『夏書』 禹貢』 第99章에 언급된 “土地와 姓을 내려주었다.[錫土姓]”는 구절의 풀이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만들게 하고, 姓을 하사하여 그 始祖를 세우게 했다는 뜻이 『역』의 3번째卦인 『屯』卦의 序文과 初九爻에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利建侯]”는 어구에서 취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屯』卦의 처한 상황이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지만, 제후와 같이 보필하는 신하들을 세워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이로우[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행임은 洪水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게 뒤집히는 때[開闢]’를 당해 마땅히 土地와 姓을 내려 도와주는 사람을 두는 것이 바로 어려움을 구제하는 길임을 治定者의 입장에서 이해했던 것이다.

① 『尙書』 『周書』 洪範』과 『易』은 하나이다. 1에서부터 9疇까지는 河圖와 같으며, 五行에서부터 福極까지는 卦爻와 같다. (『尙書』 『周書』 洪範』 第10·11·16章에) “무릇 서민들이[凡厥庶民]”⁵⁶⁾라고 하는 것은 (『易』의) 『象傳』·『象傳』과 같다.

56)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 洪範』 第10章(『四庫』 58) “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 惟皇, 作極.”; 『周書』 洪範』 第11章(『四庫』 58) “凡厥庶民, 有猷·有爲·有守, 汝則念之,

大禹는 庖犧와 같으며, 箕子는 文王과 같다. 文王⁵⁷⁾과 箕子⁵⁸⁾가 (『易』 『(地火)明夷(36)』卦 程傳에) “밝음이 傷한 때를 당하였다.[當明夷之時]”⁵⁹⁾는 것은 모두 紂에 의해 간혀졌지만, (文王은 『易(64괘)』을 演繹하고 (箕子는 『洪範』을 전한 것이 또한 우연이 아니었다. 『春秋傳』에서는 『周書_洪範』을 『商書_洪範』으로 삼으니, 아마도 『春秋』의 뜻일 것이다.⁶⁰⁾

② 九疇⁶¹⁾ 가운데 네 번째 五紀⁶²⁾와 다섯 번째 皇極⁶³⁾를 서로 곱하면 각각 25가 되며, 합하면 50이니, 大衍의 數가 된다. 일곱 번째 稽疑⁶⁴⁾는 서로 곱하면 49가 된다. 이것이 (『역』 『繫辭上傳』 第9章에) “大衍의 數 50이니, 그 씬은 49이다.”⁶⁵⁾ 아홉 번째 六極⁶⁶⁾은 서로 곱하면 36이 되니, 곧 이것이 ‘36宮’이다. 세 번째 八

不協於極, 不罹於咎, 皇則受之. 而康而色, 曰: ‘予攸好德, 汝則錫之福. 時人, 斯其惟皇之極.’; 『周書_洪範』 第16章(『四庫』 58) “凡厥庶民, 極之數言, 是訓是行, 以近天子之光. 曰: ‘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

- 57)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13, 『明夷_彖傳』(『四庫』 28) “彖曰: ‘明入地中, 明夷, 內文明而外柔順, 以蒙大難, 文王以之.’”
- 58)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13, 『明夷_彖傳』(『四庫』 28) “彖曰: ‘利艱貞, 晦其明也. 內難而能正其志, 箕子以之.’”
- 59)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13, 『明夷_序文(程傳)』(『四庫』 28) “明夷, 利艱貞. (程傳) 君子當明夷之時, 利在知艱難而不失其貞正也. 在昏暗艱難之時, 而能不失其正, 所以爲明, 君子也.”
- 60) 尹行恁, 『頤齋別稿』 卷10, 『薪湖隨筆_『尚書』 下』(『叢刊』 288, 26면) “範·易一也. 自一至九, 如河圖, 自五行至福極, 如卦爻. ‘凡厥庶民’, 如象·象. 大禹如庖犧, 箕子如文王. 文王·箕子, ‘當明夷之時’, 皆見囚於紂而演易傳範, 亦不偶然. 春秋傳, 以洪範爲商書, 蓋春秋之意也.”
- 61)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_洪範』 第4章(『四庫』 58) “初一, 曰‘五行’, 次二, 曰‘敬用五事’, 次三, 曰‘農用八政’, 次四, 曰‘協用五紀’, 次五, 曰‘建用皇極’, 次六, 曰‘乂用三德’, 次七, 曰‘明用稽疑’, 次八, 曰‘念用庶徵’, 次九, 曰‘嚮用五福, 威用六極.’”
- 62)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_洪範』 第8章(『四庫』 58) “四五紀, 一曰‘歲’, 二曰‘月’, 三曰‘日’, 四曰‘星辰’, 五曰‘曆數’”
- 63)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_洪範』 第9章(『四庫』 58) “五皇極, 皇建其有極, 斂時五福, 用敷錫厥庶民, 惟時厥庶民, 于汝極, 錫汝保極.”
- 64)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_洪範』 第20章(『四庫』 58) “七稽疑, 擇建立卜筮人, 乃命卜筮.”
- 65)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2, 『繫辭上傳』 第9章(『四庫』 28)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分而爲二, 以象兩, 掛一, 以象三, 揲之以四, 以象四時, 歸奇於扚, 以象閏, 五歲再閏, 故, 再扚而後掛.”
- 66)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_洪範』 第40章(『四庫』 58) “九五福,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 六極, 一曰‘凶短折’, 二曰‘疾’, 三曰‘憂’, 四曰‘貧’, 五曰‘惡’, 六曰‘弱’”

政⁶⁷⁾을 서로 곱하면 64가 되니, 곧 이것이 '64卦'이다. 여섯 번째 三德⁶⁸⁾은 서로 곱하면 9가 되니, 곧 이것이 '九疇의 數'이다. 여덟 번째 庶徵⁶⁹⁾은 서로 곱할 수 없어서 8이 되니, 곧 이것이 '8卦'이다. 이것이 이른바 河圖와 洛書는 하나이고, 『洪範』과 『易』은 서로 같다는 것이다.⁷⁰⁾

①, ②에서 윤행임은 『尙書』 『周書_洪範』과 『역』이 서로 같다는 同一性의 입장을 편다. 그 근거로 『洪範』의 내용과 『역』의 내용을 비교하며, 서로 같은 이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윤행임은 『홍범』에 보이는 1-9까지 數가 河圖의 數⁷¹⁾에서 근원한다고 하였다. 이는 『홍범』의 數가 河圖와 洛書의 數를 함께 근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河圖의 數는 天地의 數에 陽의 奇數와 陰의 偶數를 말하는 것⁷²⁾으로 庖犧氏가 龍馬의 등에 1-10까지의 문양이 그려진 河圖를 참고하여 卦를 그렸고, 大禹가 거북이 등에 1-9까지의 점이 박혀있는 洛書를 보고 『홍범』의 근원을 삼은 것이다. 윤행임은 또한 洪範九疇를 『역』의 卦爻에 비교하며 동일시하였고, 『홍범』 第10·11·16章에 언급된 “厥庶民”은 『역』의 『彖傳』과 『象傳』에 빚되었다. 文王이 지은 『彖傳』은 卦辭를 이르고, 『象傳』은 卦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洪範九疇를 구축한 大禹를 『역』의 괘를 처음 그어 만든 庖犧[伏羲]와 동일하게 보았으며, 周나라 武王에게 『홍범』을 전해준 商나라의 箕

67)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_洪範』 第7章(『四庫』 58) “三八政, 一曰‘食’, 二曰‘貨’, 三曰‘祀’, 四曰‘司空’, 五曰‘司徒’, 六曰‘司寇’, 七曰‘賓’, 八曰‘師’”

68)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_洪範』 第17章(『四庫』 58) “六三德, 一曰‘正直’, 二曰‘剛克’, 三曰‘柔克’, 平康, 正直, 彊弗友, 剛克, 變友, 柔克, 沈潛, 剛克, 高明, 柔克.”

69)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_洪範』 第32章(『四庫』 58) “八庶徵, 曰‘雨’, 曰‘暘’, 曰‘燠’, 曰‘寒’, 曰‘風’, 曰‘時’, 五者, 來備, 各以其敍, 庶草, 蕃廡.”

70) 尹行恇, 『碩齋別稿』 卷10, 『薪湖隨筆_『尙書』 下』(『叢刊』 288, 27면) “九疇中四五相乘, 各爲二十五, 合以爲五十, 爲大衍之數. 七稽疑相乘爲七七四十九, 是‘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九也.’ 六極相乘爲六六三十六, 則是‘三十六宮’也. 八政相乘爲八八六十四, 則是‘六十四卦’也. 三德相乘爲三三九, 則是‘九疇之數’也. 八徵不得相乘而爲八, 則是‘八卦’也. 此所謂‘河洛一而範易同’也.”

71)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2, 『繫辭上傳』 第11章(『四庫』 28)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72)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2, 『繫辭上傳』 第9章(『四庫』 28)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 (本義) 天地之數, 陽奇陰偶, 卽所謂河圖者也.”

자를 『역』의 64괘를 완성한 文王과 나란히 놓으며, 『홍범』과 『역』의 同一性を 역설하였다.

②에서는 『尙書』 『洪範』에 나오는 九疇 가운데 八政[3] · 五紀[4] · 皇極[5] · 三德[6] · 稽疑[7] · 庶徵[8] · 六極(五福)[9]의 數를 합하거나 서로 곱하여 『역』의 數法과 일치함을 보여주면서 河圖와 洛書 그리고 『홍범』과 『역』이 그 이치가 같다는 同一性を 증명하고 있다. 윤행임은 먼저 『홍범』 九疇 가운데 네 번째 五紀와 다섯 번째 皇極의 數를 서로 곱하고 합하면 『역』 『繫辭上傳』 第9章에 보이는 ‘大衍의 數’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홍범』 九疇 가운데 일곱 번째 稽疑의 數를 서로 곱하면 실제로 쓰이는 ‘大衍의 數’ 49가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홍범』 九疇 가운데 마지막 아홉 번째 六極의 數를 서로 곱하면 『역』에서 말하는 36宮이 된다고 하였다. 極은 福의 근본이며, 福은 極의 效驗이니, 極을 세우는 것은 福이 모여지는 것⁷³⁾이므로 六極은 五福과 함께 九疇의 마지막을 차지한다. 36宮은 천지 만물에 모두 生長의 밝은 기운이 깃들여 있다는 뜻으로 『역』 64卦를 달리 칭하는 말인데, 64괘가 1년 사철, 천지 만물을 상징하므로 36궁 역시 이를 뜻하는 말이 된다. 北宋五子の 한 사람으로 『역』에 정통한 宋나라 邵康節은 『觀物吟』에서 “36궁이 모두 봄이로다.[三十六宮都是春]⁷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李瀾(1681-1763)은 36궁에 대해서 “64卦 중에 變易하는 것은 8卦이니 乾 · 坤 · 坎 · 離[離] · 頤 · 大過 · 中孚 · 小過가 이것이며, 交易하는 것은 56卦이니 屯 · 蒙 이하가 이것이다. 變易하는 것은 8卦가 각각 한 宮이 되고, 交易하는 것은 2卦가 합하여 한 宮을 이루어 36宮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說이 가장 타당하다.⁷⁵⁾”라고 하여 36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계속해서 윤행임은 『홍범』 九疇의 세 번째 八政의 數를 곱하면 『역』 64괘 이뤄

73) 蔡沈, 『書經集傳』 卷6, 『周書·洪範』 第9章(『四庫』 58) “(蔡沈註) 極者, 福之本, 福者, 極之效, 極之所建, 福之所集也.”

74) 邵雍, 『擊壤集』 卷16, 『觀物吟』(『四庫』 1101) “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 因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觀月窟, 地逢雷處看天根. 天根月窟間來往, 三十六宮都是春.”

75) 李瀾, 『星湖先生僊說』 卷20, 經史門, 『三十六宮』(國立中央圖書館本) “六十四卦, 變易八卦, 乾 · 坤 · 坎 · 離[離] · 頤 · 大過 · 中孚 · 小過, 是也, 交易五十六卦, 屯蒙以下, 是也. 變易者, 八卦各爲一宮, 交易者, 二卦合, 成一宮, 爲三十六宮也. 此說最當.”

지고, 「홍범」 九疇의 6번째 三德의 數를 곱하면 9가 되어 이것이 ‘九疇의 數’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역』에 있어 ‘九疇의 數’의 근원은 바로 大禹가 洛書의 1-9까지의 점을 바탕으로 만든 것⁷⁶⁾임을 三德의 數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범」 九疇의 여덟 번째 庶徵의 數가 『역』의 8卦에 해당한다고 보고 「홍범」과 『역』의 同一性を 거듭 주장하였다.

윤행임은 『역』을 통하여 『상서』를 이해하려 하였다. 당시 주군이었던 정조에게 있어 『역』과 『상서』는 자신의 안위와 나라의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사안들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였기에 개인적으로나 여러 초계문신들과 함께 한 經史講義를 통해서도 부지런히 열독했던 것이다. 정조의 그 같은 영향을 받은 윤행임에게 있어서도 『역』과 『상서』는 治定者들을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2) 『역』을 활용한 『毛詩[詩經]』해석

정조는 경사강의에서 『시경』과 『서경』이 『역』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⁷⁷⁾ 그러나 윤행임은 『모시[詩經]』과 『서경』도 『역』과 상응하는 구조로 되어있음을 자각한다. 이것은 『역』을 통한 경전해석방식에 있어 정조가 생각했던 범위를 윤행임이 새롭게 발전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 『신호수필』에서 윤행임은 漢代 毛亨의 『시경』 주석서인 『毛詩』를 통해 『시경』에 대한 해석을 밝히고 있다.

(『詩經』 「召南」 野有死麕)의 “野齧白茅”는 先儒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내 뜻은 『역』의 「(澤風)大過(28)」卦 初六의 〈象傳〉이라 생각한다. 初六의 “갈되 흰 띠를 사용한다[藉用白茅]⁷⁸⁾”는 陰이 아래에 거처하니, 마땅히 공경하고 삼가 해야 한다. 띠 풀[茅]이 비록 얇지만 색은 희니, 땅에 놓아 그 사용함을 두터이 한다. 말하길 “남자

7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__經傳類, 「書經__洪範皇極辨證說」(國立中央圖書館本) “洛書錫神禹而數不傳, 故作是書以究極其數. 且謂二而四, 四而八. 八者, 八卦之象也. 一而三, 三而九. 九者, 九疇之數也. 由是重之, 八而六十四, 六十四而四千九十六, 而象備矣. 九而八十一, 八十一而六千五百六十一, 而數周矣.”

77) 신원봉, 2009 앞의 논문, 105면 참고.

78)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11, 「大過_初六」(『四庫』 28) “初六, 藉用白茅, 无咎.”

의 구혼은 예로써 함이 마땅하고, 강제적이고 사나운 행동으로 (구혼) 해서 마땅치 않다.[男子求婚當以禮, 不當爲強暴之行]”라고 한 것도 「大過(28)」卦의 初六과 같다. 그러므로 흰 띠풀[白茅]로 흥기해야 한다.⁷⁹⁾

위의 글은 윤행임이 『詩經』, 國風, 「召南_野有死麕」의 “野麕白茅”⁸⁰⁾ 즉, “뜰에 죽은 노루 있거늘 흰 띠풀로 싸도다[野有死麕, 白茅包之]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의 28번째 「(澤風)大過」卦 初六의 〈象傳〉⁸¹⁾을 가져와 풀이하고 있다.

주자에 의하면 해당 구절은 興에 속하며, 南國이 文王의 교화를 입어 女子가 정조를 지키고 몸을 깨끗이 하여 스스로를 지켜 強暴한 자에게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것을 찬미한 詩라고 하였고, 或者는 賦에 속하며, 아름다운 선비가 흰 띠풀로 죽은 노루를 싸서, 봄을 그리워하는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라 했다.⁸²⁾ 그리고 毛亨은 強暴한 자들의 無禮함을 미워한 시⁸³⁾라고 하였다.

윤행임은 흰 띠풀의 관계를 설명함에 「대과」괘 초육의 위치에 따른 풀이를 더한다. 「대과」괘 초육은 전체적으로 風의 성질인 유순함과 공손함[巽]을 가지고 있지만, 괘의 위치상 陽의 자리에 陰이 위치해 있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삼가는 자세를 유지하여 후일 임금[文王]의 은택이 내려지길 바라는 형상을 지닌다. 이에 초육을 상징하는 띠풀은 지극히 하찮은 물건이지만, 죽은 노루를 씹어 있어 공경함과 신중함의 중요한 도구로 적극 활용된다. 즉 이것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공경함과 삼가함을 지극히 해야 목적인 바를 이루고 허물이 없다는 것에서

79) 尹行恮, 『碩齋別稿』卷11, 「薪湖隨筆_『毛詩』上」(『叢刊』288, 38면) “野麕白茅, 先儒多有解釋, 而余意則以爲易之大過初六之象也. 初六 ‘藉用白茅’, 以陰居下, 當用敬慎, 茅雖薄, 色則白, 錯諸地而厚其用也. 言 ‘男子求婚當以禮, 不當爲強暴之行.’ 如大過初六, 故以白茅起興.”

80) 朱熹, 『詩經集傳』卷1, 國風, 「召南_野有死麕」(『四庫』72) “野有死麕, 白茅包之. 有女懷春, 吉士誘之.”

81) 胡廣, 『周易傳義大全』卷11, 「大過_(初六)象傳」(『四庫』28) “象曰 : ‘藉用白茅, 柔在下也.’”

82) 朱熹, 『詩經集傳』卷1, 國風, 「召南_野有死麕」(四庫 72) “(朱子註)南國, 被文王之化, 女子有貞潔自守, 不爲強暴所污者, 故, 詩人, 因所見以興其事而美之. 或曰 : ‘賦也, 言美士以白茅包其死麕, 而誘懷春之女也.’”

83) 鄭玄 外, 『毛詩注疏』卷2, 國風, 「召南_野有死麕」(四庫 69) “(毛序)野有死麕, 惡無禮也. 天下大亂, 疆暴相陵, 遂成淫風, 被文王之化, 雖當亂世, 猶惡無禮也. 箋, 無禮者, 爲不由媒妁鴈幣, 不至劫脅, 以成昏謂紂之世音義.”

흰 띠풀의 역할과 기능을 해석해 놓고, 『시경』과 『역』의 상응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易』에 말하기를 “[『(風澤)中孚(61)』卦 九二(爻)에] 우는 학이 음지에 있는데 그 새끼가 화답하도다[鳴鶴在陰, 其子和之]”⁸⁴⁾라고 하였다. (『易』『繫辭上傳』 第8章에서) 孔子가 말하기를 “군자가 집에 거하여 말을 냄이 선하면 천리의 밖에서도 응하니, 하물며 가까운 자에 있어서라?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乎?]”⁸⁵⁾라고 하였다. (『詩經』『曹風』『鳴鳩』의) “빼꾸기가 뽕나무에 있으니, 그 새끼는 매화나무에 있도다[鳴鳩在桑, 其子在梅]”라고 한 것은 공자의 『易』『繫辭傳』『中孚(61)』卦 九二(爻)와 서로 부합되니, 바로 정성스럽고 참되게 감응하여 통하는 이치이다. 誠信·感通한 이후에는 四國을 바로잡을 수 있다. 四國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천리의 밖에서도 응한다는 것이다.⁸⁶⁾

윤행임은 또한 『詩經』『曹風』『鳴鳩』의 “鳴鳩在桑, 其子在梅”⁸⁷⁾의 구절을 풀이함에 있어서 『시경』과 『역』의 상응구조를 적극 활용하였다. 윤행임은 『역』의 61번째 卦인 『(風澤)中孚』卦 九二爻에 보이는 “鳴鶴在陰, 其子和之”⁸⁸⁾와 『易』『繫辭上傳』 第8章에서 공자가 언급한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乎?”⁸⁹⁾라는 문구들을 가져와 九二 爻의 핵심인 孚信과 至誠의 진실 됨이 뻐

84)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1, 『中孚_九二』(『四庫』 28) “九二,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85)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2, 『繫辭上傳』 第8章(『四庫』 28)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子曰: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居其室, 出其言不善, 則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言出乎身, 加乎民, 行發乎邇, 見乎遠, 言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 君子之所以動天之也, 可不慎乎?’”

86) 尹行恇, 『碩齋別稿』 卷11, 『薪湖隨筆_『毛詩』上』(『叢刊』 288, 48면) “易曰: ‘鳴鶴在陰, 其子和之.’ 孔子曰: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乎?’ ‘鳴鳩在桑, 其子在梅’, 相符於孔子之易繫中孚九二, 卽誠信感通之理也. 誠信感通而後, 可以正四國, 正四國, 所以應乎千里之外也.”

87) 朱熹, 『詩經集傳』 卷7, 國風, 『曹風』『鳴鳩』(『四庫』 72) “鳴鳩在桑, 其子在梅, 淑人君子, 其帶伊絲, 其帶伊絲, 其弁伊騏.”

88)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1, 『中孚_九二』(『四庫』 28) “九二,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89)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2, 『繫辭上傳』 第8章(『四庫』 28) “鳴鶴在陰, 其子和之, 我有好爵, 吾與爾靡之. 子曰: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居其室, 出

꾸기[鴟鵂]와 그 새끼, 鶴과 그 새끼 간을 화답으로 이끌고 있으며, 나아가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비롯한 淑人君子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떳떳한 법도가 孚信과 至誠에서 출발해야 만이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부』괘의 九二 爻의 특징은 陰의 자리에 강한 陽이 위치해 있으므로 孚信과 至誠이 지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曹風』鴟鵂와의 상응이 자연스럽게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詩經』『邶風』에) 鴟鵂는 『易』의 『(雷山)小過(62)』卦의 나는 새[飛鳥]의 象을 취한 것이다. 『소과(62)』괘 初六과 九四(爻)는 서로 응하여 마치 날아가는 새[征鳥]가 위태로움이 있는 것 같다. 저 武庚·管叔·蔡叔의 상응함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周公이 鴟鵂로써 그것을 비유한 것이다.⁹⁰⁾

윤행임은 『역』의 62번째 卦인 『(雷山)小過』卦 初六과 九四 爻⁹¹⁾에 보이는 문구를 인용하여 『詩經』『邶風』에 보이는 鴟鵂⁹²⁾의 의미를 풀이하였다. 鴟鵂는 새의 새끼를 잡아먹는 나쁜 새로 商나라 紂의 아들인 武庚을 비유하여 管叔·蔡叔과 함께 周公과 成王 그리고 周나라 왕실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됨을 노래한 시이다.

먼저 初六은 陽의 자리에 陰이 위치하여 小人의 象이 되며, 위로는 九四 爻와 서로 응한다. 소인의 성질은 조금하고 함부로 행하며 위에서 應助함이 있으면 너무 過함에 이르러 마치 나는 새처럼 빨라 결국 이를 그르치는 凶함이 있게 된다. 여기서 九四는 무경이며, 초육은 관숙과 채숙이 해당된다. 周公은 자신을 음해하려고 관숙과 채숙 등이 퍼뜨린 流言蜚語[公將, 不利於孺子]와 이들의 반란

其言不善, 則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言出乎身, 加乎民, 行發乎邇, 見乎遠, 言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 君子之所以動天之也, 可不慎乎?”

90) 尹行恁, 『碩齋別稿』卷11, 『薪湖隨筆』『毛詩』上, (『叢刊』288, 49면) “鴟鵂所以取易之小過飛鳥之象焉. 小過初六與九四相應, 若征鳥之厲. 彼武庚·管·蔡之相應是也. 故周公以鴟鵂比之.”

91) 胡廣, 『周易傳義大全』卷21, 『小過_初六』(『四庫』28) “初六, 飛鳥, 以凶.”; 胡廣, 『周易傳義大全』卷21, 『小過_九四』(『四庫』28) “无咎, 弗過, 遇之, 往, 厲. 必戒, 勿用永貞.”

92) 朱熹, 『詩經集傳』卷8, 國風, 『邶風』鴟鵂, (『四庫』72) “鴟鵂鴟鵂, 既取我子, 無毀我室. 恩斯勤斯, 鬻子之閔斯.”

을 진압해야했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周나라 왕실과 成王은 큰 상처를 입어야 했다. 이상의 사실은 『소과』괘의 初六과 九四의 특징과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듯 윤행임은 『시경』과 『역』의 상응구조를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易』 [『(山雷)履(10)』卦 (上九)]에 “행한 것을 보아吉凶을 상고한다[視履考祥]”과 『詩經』 (『豳風_狼跋』)에 “붉은 신이 편안하시도다[赤舄几几]”는 그 뜻이 一致한다. 대저 聖人이 變故에 대처하는 道는 오로지 천명을 따르는 것으로 뜻을 삼는다. 그러므로 黃龍이 배를 짊어지고도 夏禹는 변고를 당하지 않았고, 桓魋가 나무를 베어도 孔子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周公이 유언비어를 두려워하던 때를 당하여 사람들의 말함이 어찌 이르지 않았겠는가? 그 이른바 “(管叔과 蔡叔 등이) (주공은 장차) 孺子[成王]에게 이롭지 못하다.[(公將)不利(於)孺子]”⁹³⁾라고 하였다. 后羿와 寒浞의 경우로 周公을 보면 周公은 안으로 (자신을) 살펴 하자가 없었으며, 걸음걸이를 편안히 함에 1分 1寸도 어김이 없었다. 詩人이 묵묵히 살펴 마음속으로 알아차린 것이 衣裳과 言語의 사이에 있지 않았고, 걸음걸이가 편안한 즈음에 있었으니, 잘 형용했다 이를 만하다.⁹⁴⁾

윤행임은 『詩經』 『豳風_狼跋』에 보이는 “赤舄几几”⁹⁵⁾를 『易』의 10번째 괘인 『(山雷)履』卦의 上九 (爻)의 “視履考祥”⁹⁶⁾에 대입하여 그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윤행임이 말한 “其義一也”이다. 즉, 이것은 『시경』과 『역』의 어구들이 가지는 뜻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으로 윤행임의 『역』근원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윤행임은 『履』卦 上九 爻가 夬의 맨 위에 자리하여 그 終末을 상고하여 善惡과 禍福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명을 따라 변고

93) 蔡沈, 『書經集傳』 卷7, 『周書_金縢』 第12章(『四庫』 58) “武王, 既喪, 管叔, 及其群弟, 乃流言於國曰: ‘公將不利於孺子.’”

94) 尹行恇, 『碩齋別稿』 卷11, 『薪湖隨筆』 『毛詩』 上(『叢刊』 288, 50면) “易云, ‘視履考祥’, 詩曰: ‘赤舄几几’, 其義一也. 大抵聖人處變之道, 惟以順命爲意. 故黃龍負舟而夏禹不變, 桓魋伐樹而孔子不撓. 當周公恐懼流言之時, 人之爲言, 何所不至, 其所云, ‘不利孺子’, 以羿·浞視周公, 而周公內省而不疚, 步履安閒, 罔違分寸. 則詩人之默察而潛識, 不在於衣裳言語之間, 而在於步履安閒之際, 可謂善形容矣.”

95) 朱熹, 『詩經集傳』 卷8, 國風, 『豳風_狼跋』(『四庫』 72) “狼跋其胡, 載疐其尾. 公孫碩膚, 赤舄几几.”

96)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5, 『履_上九』(『四庫』 28) “上九, 視履, 考祥, 其旋, 元吉.”

에도 뗏뗏함을 잃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 인물들로 夏禹, 孔子가 변고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예로 들어 보여주고 있다. 夏禹는 『太平御覽』 「夏禹」에 “禹 임금이 남방을 순행하다가 강을 건너는데 黃龍이 배를 짊어지니, 배안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나 우 임금은 하늘을 우러러 웃으며 ‘내가 天命을 받았다.’ 하고는 태연하자, 황룡이 머리를 숙이고 도망쳤다.”⁹⁷⁾라고 하는 부분이며, 공자의 경우는 그가 曹나라를 떠나 宋나라를 지날 때 제자들과 더불어 큰 나무 아래서 禮를 익혔는데, 송의 司馬桓魋가 나무를 뽑아 공자를 죽이고자 한 사례를 든 것이다.⁹⁸⁾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 윤행임은 『邠風_狼跋』에 보이는 “赤鳥几几”한 인물로 周公을 언급하며 비록 비방과 의심을 만났지만, 왕위를 찬탈했던 夏의 后羿나 寒浞과는 달리 변고에 대처함에 있어 그 뗏뗏함을 잃지 않은 모습을 흥기시켜 줌으로 『역』을 통한 『시경』의 풀이가 틀리지 않고 꼭 맞아 떨어짐을 주장하였다.

3) 『역』을 활용한 『十九史略』해석

윤행임은 『十九史略』과 『通鑑節要』와 같은 歷史類의 해석에서도 『역』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십구사략』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등장한다. 『십구사략』은 南宋말에서 元나라 초까지 활동했던 曾先之의 『十八史略』에 明나라 학자 余進이 元史를 추가하여 만든 歷史書로 알려져 있다.

이미 『춘추좌씨전』을 읽고, 인하여 漁夫집에서 빌린 『十九史略』을 보았는데, 대개 어부가 읽던 것이었다. 또 이것을 漫筆함에 그 적합한 것을 취하였다. (『좌전』을 통해) 옛 사람들의 지난날 得失을 점검한 뒤라서 매우 쉬웠지만 說함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⁹⁹⁾

97) 李昉, 『太平御覽』 卷82, 「夏禹」(『四庫』 893) “禹南濟乎江, 黃龍負舟, 舟中之人恐懼. 禹仰而笑曰: ‘余受命於天’, …… 龍弭耳低尾而逃.”

98) 朱熹, 『論語集註』, 「述而 7」 第22章(『四庫』 197)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99) 尹行恁, 『碩齋別稿』 卷18, 「薪湖隨筆」 『十九史略』(『叢刊』 288, 147면) “既讀左傳, 因漁戶借見十九史略, 蓋漁子之所讀也. 又此漫筆, 取其適也. 追點古人得失於事往之後甚易, 爲說有不可忽也.”

윤행임은 『십구사략』 서문에서 자신이 『십구사략』을 얻게 된 경위와 읽게 된 동기, 그리고 기술형태의 대략을 설명하였다. 윤행임은 막 『좌전』을 읽은 터라 『십구사략』이 상대적으로 쉽게 와 닿았지만,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윤행임은 『십구사략』 도입부에서 三皇五帝를 비롯한 太古때 역사적 사실을 요약하고, 그에 해당하는 『역』의 근원과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십구사략』을 풀이하였다.

① 伏羲가 天下를 소유하였고, 龍馬가 그림을 지고 河水에서 나왔으니, 하늘이 斯文의 밝은 運을 열게 하여 지극한 이치의 妙緘을 드러내었다. 董子[董仲舒]는 “道의 큰 근원은 天에서 나왔다.”라고 하였으니, 우리 儒者가 天의 學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대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¹⁰⁰⁾

② 乾이 健하고 坤이 順한 것은 理의 바름이며, 陽이 剛하고 陰이 柔한 것은 氣의 원리이다. 天이 一이고 地가 二인 것은 數의 시작이며, 艮이 山이고, 坎이 水인 것은 象의 시작이다. …… 卦가 서로 섞이거나[相盪]¹⁰¹⁾ 爻가 서로 변하는 것은 事物의 근원[根荄]이다.¹⁰²⁾

③ 河圖는 生數를 主로 한다. 그러므로 上下左右가 있어 天은 一·三이 되고, 地는 二·四의 象이 되니, 陰陽의 道를 이른다. 陰陽이 서로 근본하여 萬物을 이루니, 一六은 北에 거처하고, 二七은 南에 거처하며, 三八은 東에 거처하며, 四九는 西에 거처하는 것이 이것이다.¹⁰³⁾

④ 伏羲의 八卦는 長으로써 長을 짝하고, 少로써 少를 짝한다. 文王의 八卦는 長으로써 少를 짝하니, 각각 지극한 이치가 있다. 先天의 學은 한쪽만 폐하는 것은 불가하니, 풍수자들이 “四大格”이라고 하는 것은 先天을 위주로 말한 것이다.¹⁰⁴⁾

100) 尹行愆, 『碩齋別稿』 卷18, 『薪湖隨筆_『十九史略』』(『叢刊』 288, 147면) “伏羲之有天下也, 龍馬負圖而出於河, 天所以啓斯文之熙運, 闡至理之妙緘也. 董子曰: ‘道之大原出於天.’ 吾儒本天之學, 蓋始於斯.”

101)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2, 『繫辭上傳』 第1章(『四庫』 28) “是故, 剛柔相摩, 八卦相盪.”

102) 尹行愆, 『碩齋別稿』 卷18, 『薪湖隨筆_『十九史略』』(『叢刊』 288, 147면) “乾健坤順, 理之端也, 陽剛陰柔, 氣之原也. 天一地二, 數之肇也, 艮山坎水, 象之始也. …… 卦相盪而爻相變, 事物之根荄也.”

103) 尹行愆, 『碩齋別稿』 卷18, 『薪湖隨筆_『十九史略』』(『叢刊』 288, 147면) “河圖以生數爲主也, 故其上其下, 其左其右. 爲天一地二天三地四之象, 而一陰一陽之謂道也, 陰陽互根而萬物成焉. 一六居北, 二七居南, 三八居東, 四九居西者此也.”

①, ②, ③, ④는 『십구사략』의 도입에서 「太昊伏羲氏」와 관련된 내용가운데 河圖, 龍馬, 八卦 등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①에서 윤행임은 河圖와 龍馬를 통하여 『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 儒學의 문명이 시작된 근원을 밝혔다. ②에서는 『역』의 기본적인 원리를 언급한다. 乾坤과 陰陽을 理氣로 구분하여 乾坤의 성질이 각각 健順한 것은 내재된 理이며, 陽陰의 성질이 각각 剛柔한 것은 표면화된 氣의 움직임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天[一]地[二]에 의한 數의 시작과 艮[山]坎[水]에 의한 象의 시작을 통하여 『역』과 관련된 數[生數·成數], 卦義와 卦象, 卦變, 爻變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③에서도 계속해서 『역』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河圖에서 生數[四象位, 1·2·3·4/5(中, 土, 天太極)]를 추출하여 成數[四象數, 6·7·8·9/10(中, 土, 地太極)]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天[陽, 1·3]·地[陰, 2·4]와 東[木, 3·8]·西[金, 4·9]·南[火, 2·7]·北[水, 1·6]·中[土, 5·10]의 이치에 대해 기술하였다. ④에서는 伏羲(先天)8卦와 文王(後天)8卦를 先天易과 後天易의 개념으로 나눠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風水家의 等屬이라 할 수 있는 堪輿家와 그들이 사용하는 ‘四大格’이 선천학을 위주로 함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십구사략』의 도입부에서는 중국의 역사나 사건 등의 분석보다는 『역』의 기원과 원리를 중심으로 평론하였다.

① 『十九史略』卷1 「炎帝神農氏」에 “한 낮에 시장을 만들었다.[日中爲市]”는 대개 『역』의 21번째 괘인 「(火雷)噬嗑(21)」卦에서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噬嗑을 市라 이른다. 卦·爻를 합하여 나타내니 文字가 만들어졌고, 文字가 이루어지니 土가 되었다. 쟁기와 보습이 창조되어 밭갈이와 김매기를 하게 되고, 밭갈이와 김매기를 일으키니 農이 되었다. 쪼개고 주물러서 器用을 만들고, 器用이 갖추어지니 工이 되었다. 交易이 시작되어 市塵을 만들고, 市塵이 합해지니 賈가 되었다. 이것이 士·農·工·賈가 이름 붙여진 까닭이며, 그 序次 또한 어수선하지 않은 이유이다. 士이며, 農이며, 工이며, 賈라고 하는 것은 그 차례로 나온 것이니, 醫藥·占筮의 기술 또한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¹⁰⁵⁾

104) 尹行恮, 『碩齋別稿』卷18, 「薪湖隨筆_『十九史略』」(『叢刊』288, 147면) “伏羲八卦, 以長配長, 以少配少. 文王八卦, 以長配少, 各有至理. 先天之學, 不可偏廢, 堪輿家所謂四大格者, 主先天.”

105) 尹行恮, 『碩齋別稿』卷18, 「薪湖隨筆_『十九史略』」(『叢刊』288, 148면) “日中爲市, 蓋取

② 伏羲·神農·黃帝의 역사는 『易』 「繫辭傳」을 따르고, 堯舜은 二典을 따르던, 바름을 잃지 않을 것이다.¹⁰⁶⁾

①에서 윤행임은 『十九史略』 卷1 「炎帝神農氏」에 “한 낮에 시장을 만들었다. [日中爲市]¹⁰⁷⁾ 라는 구절에 대하여 『易』 「繫辭下傳」 第2章에 “한 낮에 시장을 만들어 천하의 백성들을 오게 하고 天下의 財貨를 모아서 交易하고 물러가 각각 제 살 곳을 얻게 하였으니, 「(火雷)噬嗑(21)」卦에서 취하였다.”¹⁰⁸⁾ 라는 구절을 가져와 풀이하였다. 주자는 「本義」에서 “한 낮에 시장을 만들은 위는 밝고 아래는 動함이요, 또 噬를 가차하여 市로하고, 嗑을 숨으로 한 것이다.”¹⁰⁹⁾ 라고 하여 시장[市]이 사람들이 모여 交易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噬嗑의 음을 가차하여 그 비슷함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 윤행임은 이러한 주자의 說에 동의하였다. 윤행임은 「서합」괘의 서로 符合하는 이치를 바탕으로 卦爻가 합해져 文字나 土가 탄생한 사례나 쟁기와 보습, 밭갈이와 김매기가 합해져 農을 이룬 사례 그리고 用器를 만들고 합하여 工이 된 사례와 交易과 市廛이 합해져 賈[商]를 이룬 사례 나아가 醫藥·占筮의 기술 모두가 이러한 「서합」괘의 원리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②에서는 윤행임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誤謬와 僞作 여부를 살펴 올바른 역사관을 세울 수 있는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伏羲·神農·黃帝에 대한 역사는 『易』 「繫辭傳」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과

諸噬嗑。故噬嗑謂之市。合卦爻，著而爲文字，文字成而爲土。耒耜創而爲耨，耨作而爲農，剗揉興而爲器用，器用備而爲工，交易始而爲市廛，市廛合而爲賈。此土農工賈之所以名，而其序次亦不紊。土也農也工也賈也，以其序而出，而醫藥占筮之技，又從以起矣。”

106) 尹行愆, 『碩齋別稿』 卷18, 「薪湖隨筆」 『十九史略』, (『叢刊』 288, 158면) “伏羲·神農·黃帝之史從繫辭傳, 堯舜從二典, 則不失於正矣.”

107) 曾先之·余進,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卷1, 「炎帝神農氏」(國立中央圖書館本, 3면) “炎帝神農氏, 姜姓, 人身牛首, 繼風姓而立, 火德, 王, 斲木爲耜, 揉木爲耨, 始教耕, 作蜡帝, 以楛鞭, 鞭草木, 嘗百草, 始有醫藥, 教人日中爲市, 交易而退, 都於陳, 徙曲阜, 傳帝承·帝臨·帝則·帝百·帝來·帝襄·帝榆, 姜姓, 凡八世, 五百二十年.”

108)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3, 「繫辭下傳」 第2章(『四庫』 28) “日中爲市, 致天下之民,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各得其所, 蓋取諸噬嗑.”

109)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3, 「繫辭下傳」 第2章(『四庫』 28) “(本義) 日中爲市, 上明而下動, 又借噬爲市, 嗑爲合也.”

堯舜의 역사는 『尙書』에 보이는 「堯典」과 「舜典」을 기준으로 삼으면 正史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행임은 『역』을 활용하여 『십구사략』에 나타난 특정사건에 대한 평가 및 오류에 대한 변증을 시도하기도 한다.

① 『易』 「繫辭傳」 第11章에 “河水에서 圖가 나오고 洛水에서 書가 나왔다.[河出圖, 洛出書.]”¹¹⁰⁾라고 하였는데, 卦爻가 河圖에서 象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洛書에서도 義를 연역함이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도가 伏羲 시대에 출현하고 나서, 낙서가 夏禹 시대에 출현했다면 卦를 그리면서 낙서를 본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대개 伏羲가 취한 것은 다만 河圖일 뿐이고, 畫卦한 것은 단지 八卦일 뿐이다. 後世의 聖인이 洛書와 아울러 그 數를 참고하고 그것을 중첩시켜 64괘를 만들게 되었으니, 마치 邵康節이 언급한 伏羲의 方圓圖를 陳搏과 穆修이 배웠다는 것과 같다. 伏羲의 『易』은 一乾·二兌·三離·四震·五巽·六坎·七艮·八坤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孔子는 “비로소 八卦를 만들어 神명의 德을 通하였다.[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¹¹¹⁾라고 하였고, 朱子는 “64괘는 伏羲가 중첩시켰는지 상고할 수 없다. 다만 8괘가 있었다면 64괘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다.[六十四卦, 重於伏羲不可考. 既有八卦, 則六十四卦已在其中.]”¹¹²⁾라고 하였다.¹¹³⁾

110)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2, 「繫辭上傳」 第11章(『四庫』 28) “是故,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吉凶, 聖人像之,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易有四象, 所以示也, 繫辭焉, 所以告也, 定之以吉凶, 所以斷也.”

111)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23, 「繫辭下傳」 第2章(『四庫』 28)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112) 朱熹, 『晦庵集』 卷59, 書, 「答林正卿論六十四卦重於伏羲果否」(『四庫』 1143) “此不可考, 或‘未耜市井已取重卦之象, 則疑伏羲已重卦.’, 或者又謂‘此十三卦, 皆云: ‘蓋取’, 則亦疑詞, 未必因見此卦而制此物也.’ 今無所考, 只說得到此, 以上當且闕之, 但既有八卦, 則六十四卦已在其中, 此則不可不知耳.”

113) 尹行恮, 『碩齋別稿』 卷18, 「薪湖隨筆『十九史略』」(『叢刊』 288, 147면) “易之繫曰: ‘河出圖, 洛出書.’, 卦爻不但取象於河圖, 亦有演義於洛書, 於此可認, 而河圖出於伏羲之世, 洛書出於夏禹之時, 則畫卦而則於書者, 何謂也? 蓋伏羲之所取者, 只河圖而已, 所畫者只八卦而已, 後世聖人, 並洛書而參其數, 因以重之, 爲六十四卦焉, 若康節所謂‘伏羲方圓之圖, 陳搏·穆修之學’也, 伏羲之易, 不過一乾·二兌·三離·四震·五巽·六坎·七艮·八坤矣, 是以, 孔子曰: ‘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朱子曰: ‘六十四卦, 重於伏羲不可考. 既有八卦, 則六十四卦已在其中.’”

② 河馬·洛龜의 說은 漢나라 孔氏[孔安國]에서부터 비로소 세상에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후대 유학자들은 그것을 따랐지만, 文王과 孔子는 일찍이 말한 적이 없고, 周公과 箕子도 일찍이 법칙으로 한 적이 없었다. 周나라 皇室이 동쪽으로 遷都한 이후로부터 邪說이 때 지어 일어나 漢나라 初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았으며, 어지럽고 시끄러운 것이 마치 술주정을 부리거나 잠꼬대를 하는 것과 같았으니, 河圖와 洛書는 진실로 믿을 만한 것인가? (洛水의) 거북[龜]과 (河水의) 용마[馬]도 믿을 만한 것인가? 어찌 나무[木]·돌[石]·금[金]·옥[玉]의 類도 아닌데, 河水와 洛水에서 떠올라 거기에 문양까지 있었는지 알 수 있겠는가? 周나라가 군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赤烏와 白魚가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했다면, 어찌 龜馬가 烏魚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았겠는가? 마찬가지로 漢나라가 융성한 적이 있는데, 飛鵠과 孔雀이 거짓으로 진실을 팔았다면 어찌 龜馬가 鵠雀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았겠는가? 수상하고 괴이한 자취는 經傳에서도 보지 못했으니, 내 어찌 감히 따를 수 있겠는가?¹¹⁴⁾

①, ②에서도 윤행임은 『역』의 근원에 대하여 살피고, 의심나는 곳을 상고하는데 여념이 없다. ①에서 윤행임은 『易』 『繫辭傳』 第11章에 “河水에서 圖가 나오고 洛水에서 書가 나왔다.[河出圖, 洛出書.]”는 구절에 대한 의구심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윤행임은 먼저 伏羲 8괘의 지침이 된 河圖와 文王 64괘의 지침이 된 洛書를 통해 발전되어 왔던 『역』의 근원을 짚어 나간다. 윤행임은 이러한 『역』의 발전은 복희 8괘가 근원이 되어 文王的 64괘를 이어 周公의 象辭와 象辭 그리고 孔子의 十翼 등을 거치면서 宋나라의 陳搏과 穆修로 이어지는 圖書學[象數易]으로 꽃을 피운 것이 후대 학자들의 성과라고 보았다. 陳搏의 〈先天圖〉는 周敦頤의 〈太極圖〉에 영향을 미쳐 邵康節, 朱子 등 송나라 성리학자들의 象數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윤행임은 글의 끝에 “64괘는 伏羲가 중첩시켰는지 상고할 수 없다. 다만 8괘가 있었다면 64괘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다.”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8괘에 이어 『역』 64괘가 복희 때에도 존재했는지 여

114) 尹行恇, 『碩齋別稿』 卷18, 『薪湖隨筆』 『十九史略』 (『叢刊』 288, 148면) “河馬·洛龜之說, 自漢孔氏始行於世, 後儒因之, 文王·孔子之所未嘗言者也, 周公·箕子所未嘗卜者也. 自周室東遷以後, 邪說朋興, 至於漢初而不戢, 紛紛聒聒, 如醉嚷夢囈, 則河洛固可信也? 龜馬不可信也? 安知非木石金玉之類, 浮出河洛而有其文耶? 有周之起師也, 赤烏·白魚, 指無而爲有, 則庸詎知龜馬不如烏魚耶? 有漢之盛也, 飛鵠孔雀, 以假而售眞, 則庸詎知龜馬不如鵠雀耶? 殊常詭異之蹟, 不見於經傳者, 余何敢從也?”

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②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윤행임은 象數易學의 근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②에서 윤행임은 河水의 龍馬와 洛水의 거북[龜]에게서 河圖와 洛書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이에 윤행임은 여러 정황이나 聖人들의 經傳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논지를 입증해 나간다. 윤행임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河圖洛書가 용마와 거북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漢나라 때 학자였던 孔安國이 날조한 것이다.

둘째, 문왕, 공자, 주공, 기자도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거나 법칙으로 삼은 적이 없다.

셋째, 周나라의 국력이 약해져 동쪽으로 遷都한 이후 여러 邪說들이 때 지어 일어나 진실이 왜곡됐다.

넷째, 용마와 거북이 河水와 洛水에서 떠올랐다 해도 거기에 문양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도 힘들뿐더러 이것이 있는 그대로 현재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수상하고 괴이한 자취는 經傳에서도 보지 못했다.

윤행임은 이상과 같은 논리를 통해 『십구사략』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河圖洛書의 출처에 문제를 제기하며 ‘하도낙서의 僞作가능성과 출처불명’을 역설하였다.

『십구사략』 권1 『殷』에 “成湯이 그물을 거두고 축원하다.[成湯解網之祝]”는 것은 『易』 『(水地)比(8)』卦 九五(爻)의 “親比함을 드러나게 하다[顯比]”는 것이다. 『맹자』 『양혜왕 상』 제7장에 “은혜가 禽獸에게 미쳤다.[恩及禽獸]”와 『논어』 『태백』 제21장에 “내가 흠 잡을 데가 없다.[吾無間然]”라는 구절이 있지만, 이는 諸子百家에서 나왔으며, 伊尹과 仲虺가 전한 것이 아니니, 孔子와 孟子가 전해들은 것은 正史로 여길 수 없다. “桑林에서의 여섯 가지 자책[桑林六責]”이라고 한 것 또한 아마도 성탕 때의 말이 아닐 것이며, “뇌물이 행해졌는가?[苞苴行歟]”라는 구절도 이것이 後世의 문장과 유사하다.¹¹⁵⁾

115) 尹行愆, 『碩齋別稿』 卷18, 『薪湖隨筆』 『十九史略』, (『叢刊』 288, 151면) “成湯解網之祝, 易之顯比也. ‘恩及禽獸’·‘吾無間然’, 而出於諸子, 非伊尹·仲虺之所傳也, 孔子·孟子之所聞也, 不可引以爲正史. ‘桑林六責’, 亦恐非湯時之言, ‘苞苴行歟’, 似是後世之文.”

윤행임은 『십구사략』의 특정 구절이 僞作임을 『역』을 활용하여 밝히고 있다. 윤행임은 『易』의 8번째 괘인 『(水地)比』卦 九五(爻)의 “親比함을 드러나게 하다 [顯比]”¹¹⁶⁾라는 구절이 『십구사략』 권1 『殷』에 “成湯이 그물을 거두고 축원하다.[成湯解網之祝]”¹¹⁷⁾는 구절과 부합된다고 보았다. 『비』괘 九五는 顯比하는 道를 극진히 하는 군주의 자리인데, 윤행임은 成湯이 그 자리에 적합한 군주로 여겼다. 成湯은 夏나라 桀이 폭정으로 백성들을 그물질 하는 것에서부터 백성들을 구하였으며, 백성들을 誠意로 대하고, 훌륭한 政事와 人情을 베풀어 천하로 하여금 그 혜택을 입게 하는 군주였다. 윤행임은 이러한 성탕의 은혜가 마치 짐승을 사냥함에 3면의 그물을 거두어 살길을 열어주고, 모두가 자신의 명령에 따라 그물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하는 德으로까지 나타남에 곧 『비』괘 九五의 親比를 행하는 군주상과 일치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윤행임은 이 구절과 관련하여 伊尹과 仲虺가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諸子百家에게서 나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孔孟이 전해들은 것 또한 正史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십구사략』 권1 『은』에 보이는 ‘桑林六責’과 그 六責 가운데 하나인 ‘苞苴行歟’¹¹⁸⁾라는 항목도 成湯 때의 말이 아니라 後世의 유자들에 의해 쓰인 僞作임을 거듭 주장하며 의심을 놓지 않았다.

116) 胡廣, 『周易傳義大全』 卷4, 『比_九五』(『四庫』 28) “九五, 顯比, 王用三驅, 失前禽, 邑人不誡, 吉. 象曰: ‘顯比之吉, 位正中也.’”

117) 曾先之·余進,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卷1, 『殷』(國立中央圖書館本, 16-17면) “湯出見, 有張網四面而祝之曰: ‘從天降, 從地出, 從四方來者, 皆罹吾網.’, 湯曰: ‘噫! 盡之矣. 乃解其三面, 改祝曰欲左, 左, 欲右, 右, 不用命者, 入吾網.’ 諸侯, 聞之曰: ‘湯德, 至矣, 及禽獸.’”

118) 曾先之·余進,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卷1, 『殷』(國立中央圖書館本, 17면) “大旱七年, 太史占之曰: ‘當以人, 禱.’ 湯曰: ‘吾所爲請者, 民也, 若必以人禱, 吾請自當.’ 遂齋戒, 剪爪斷髮, 身嬰白茅, 以身爲犧牲, 禱于桑林之野, 以六事, 自責曰: ‘政不節歟? 民失職歟? 宮室崇歟? 女謁盛歟? 苞苴行歟? 讒夫昌歟?’, 言未已, 大雨, 方數千里.”; 祝穆, 『古今事文類聚前集』 卷5, 天道部, 『湯禱桑林』, “湯伐桀後, 大旱七年, 煎砂鑠石. 太史占之曰: ‘當以人禱.’ 湯曰: ‘吾所爲請雨者, 民也, 若必以人禱, 吾請自當.’ 遂齋戒剪髮斷爪, 素車白馬, 身嬰白茅, 以身爲犧牲, 禱於桑林之野, 持三足鼎, 祝於山川曰: ‘政不一與? 民失職與? 宮室營與? 婦謁盛與? 苞苴行與? 讒夫昌與? 何不雨之極?’ 言未已而天大雨.”

IV. 맺음말

『역』은 윤행임의 경학관을 살필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윤행임은 자신의 『신호수필』에서 『논어』·『맹자』·『대학』·『중용』·『상서』·『모시』이외에도 『소학』·『예기』·『좌전』·『십구사략』·『通鑑節要』·『事物要義』·『經傳同異』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역』을 활용하여 해석을 시도하였다.

윤행임은 『역』을 활용한 經傳類[『상서』·『모시{시경}]] 해석방식에서 해당 구절을 직접 가져와 『역』의 구절에 대입하여 풀이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 반면 歷史類인 『십구사략』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역』을 끌어와 해당 구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구사략』 특정 구절의 眞僞與否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을 가감 없이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윤행임의 『역』을 활용한 經史類 해석방식은 ‘이경증경’의 전형적인 고증방식에 해당한다. 윤행임은 訓詁나 名義에 있어서 주자의 學說을 따르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윤행임이 행한 훈고방법 자체는 당시 청대 고증학풍의 시류에 편승한 고증방법을 일정부분 수용한 형태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자학을 지켜내기 위한 대의를 찾는 수단으로서의 고증을 긍정한 것이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經史類의 해석에 있어 『역』 근원설의 주장과 『역』을 활용한 경전해석 방식은 정조와 행한 경사강의에 의해서 그 단초가 마련되었지만, 윤행임은 이를 더욱 진일보시켜 거의 모든 經史類 해석에 널리 활용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윤행임 경학의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신호수필』은 윤행임이 40세 되던 1801년에 저술한 것이다. 이 시기는 다시 말해 1783년(계묘) 22세 때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처음 ‘경사강의’를 접하며 습득한 학문에서 좀 더 나아가 어느 정도 완숙기에 접어든 시기로 볼 수 있다. 1783년 정조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던 ‘경사강의_『역』’은 모두 4번에 걸쳐 시행된다. 경사강의 당시 정조는 비교적 의리역에 비중을 두고 강의하였다. 정조의 경사강의_『역』 가운데 『역』의 전체를 강의한 것은 바로 윤행임이 참여했던 계묘년의 경사강의였다. 계묘년 경사강의는 이후 윤행임이 역학에 애착을 보인 계기가 되었다. 윤행임의 학문은 정조와 함께했던 기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당시 정조로부터 받은 학문적 영향은 그대로 晩年까지 이어졌다. 경사강의를 통해 전수받은 『역』 해석은 윤행임의 역학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윤행임의 『역』 활용 방식은 정조시대 경전해석 방식의 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經史講義, 易根源說, 尙書, 書經, 毛詩, 詩經, 十九史略

투고일(2020. 11. 5), 심사시작일(2020. 11. 13), 심사완료일(2020. 11. 26)

〈Abstract〉

The Aspects and Significance of Suk-Jae Yoon Haeng-im's Usage of the 『*I Ching*』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ies in 『Shinho-Essay』 *

Nam, Yoon-deok **

The *I Ching* is a central book that Yoon Haeng-im preferred to use, which can show his perspective o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In his essay *Shinho-supil*, with the *I Ching*, Yoon Haeng-im attempted to interpret a variety of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ies (gyeongsa), such as the Analects, the Mencius, the Great Learning, the Doctrine of the Mean, the Shangshu, the Mao Odes, the Lesser Learning, the Book of Rites, the Zuo zhuan, the Summary of the Nineteen Histories, the Tongjuan waiji, the Shiwu yaoyi, and the Jingchuan tongyi. Yoon Haeng-im had his own method of interpreting these Confucian Classics and classical Chinese histories with the *I Ching*. On the one hand, while interpreting the Confucian Classics, Yoon Haeng-im selected phrases that he believed were needed to be explained in detail, and matched them with the corresponding passages in the *I Ching*. On the other hand, Yoon Haeng-im used excerpted passages from the *I Ching* to help to better understand classical Chinese histories such as the Summary of the Nineteen Histories. Furthermore, with the *I Ching*, he raised his doubts about some specific passages from these history books and argued whether or not these passages were written based on historical facts. The early 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n Classics and classical Chinese histories was confirmed at King Jeongjo's lecture on gyeongsa, called gyeongsa-gangui. In this lecture, there were a series of questions posed by the king about the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ies, which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B5A07092972).

** Instruct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Pusan National University.

were answered by his civil servants. The king and his civil servants believed that the *I Ching* wa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gyeongsu. Yoon Haeng-im appears to have further developed this method of interpretation, resulting in him using his own methods to explain almost all of the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ies in detail. This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Yoon Haeng-im's interpretation of gyeongsu. To conclude, in the history of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Yoon Haeng-im's usage of the *I Ching* seems to have represented a paradigm of methods in interpreting the Confucian Classics and classical Chinese histories during the era of King Jeongjo.

Key Words : King Jeongjo's lecture on the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ies, the *I Ching* that was a precondit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ies, the Shangshu, the Book of Documents, the Mao Odes, the Classic of Poetry, the Summary of the Nineteen Histories